

大巡思想의 人間改造

朴昇植*

目次

I. 序論	IV. 人間改造의 方向
II. 大巡思想의 人間觀	V. 結論
III. 地上神仙의 意義	

I. 序論

본 논문은 대순사상의 목적 중에서 두 번째인 地上神仙實現-人間改造를 연구한 것이다. 본래 목적이란 어떠한 조직이나 단체가 실현하고자 하는 미래의 상태를 표현한 것이다. 어떠한 조직이나 단체는 설립하거나 구성 시에는 달성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데, 이를 목적이라 한다. 그리하여 목적이 없는 조직이나 단체는 없으므로, 목적은 모든 조직과 단체에 필수불가결한 속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목적은 조직이나 단체가 실현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로서 존재의 기본이 된다.

대순사상의 목적은 無自欺-精神開闢, 地上神仙實現-人間改造, 地上天國實現-世界開闢인데, 無自欺-精神開闢은 본 논총의 지난 호에서 다루었다. 대순사상의 목적은 대순사상이 실현하고자 하는 미래의 상태로서, 활동방향을 제시해 준다.

대순사상의 목적은 단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번째는 無自欺-精神開闢이고, 다음은 地上神仙實現-人間改造이며, 최종적인 목적은 地上天國建設 - 世界開闢이다. 無自欺-精神開闢이 이루어져야 地上神仙實現-人間改造가 가능

* 행정학 박사

하고, 地上神仙實現-人間改造가 달성되어야 地上天國實現-世界開闢이 실현될 수 있다. 즉 대순사상의 목적은 상위목적과 하위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地上天國實現-世界開闢이 실현은 궁극적 목적이며, 無自欺-精神開闢과 地上神仙實現-人間改造는 地上天國實現-世界開闢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대순사상의 목적은 無自欺-精神開闢, 地上神仙實現-人間改造, 地上天國實現-世界開闢과 같이 쌍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는 결과를 나타내고 후자는 전자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다”는 無自欺는 精神開闢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자기의 양심에 따른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인격적으로 성숙하는 정신적인 변화인 정신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¹⁾ 사람이 양심대로 행동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생활에서는 邪心에 의해 비양심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양심적인 행동이 손해를 본다는 인식에 의해 양심적인 행동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데 원인이 있다. 무자기를 실행하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지켜야 할 기본도리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행하지 못하는 것은 정신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간이 양심대로 행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신적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정신개혁이고, 정신개혁이 이루어져야만 무자기를 실행할 수 있다.

地上神仙實現-人間改造와 地上天國實現-世界開闢도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 지상신선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이 개조되어야 하고, 지상천국을 실현하려면 세계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地上神仙이란 현실의 인간이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는 새로운 인간으로 변화된 존재를 말한다. 지상신선이란 현세의 인간이 신선이 되는 것으로서, 인간이 개조되어야 한다.

세계개혁이 이루어져야 地上天國이 실현될 수 있다. 지상천국 실현은 대순사상의 궁극적 목적으로서 인간을 포함한 우주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전환되는 세계개혁에 의해서 실현될 수 있다. 無自欺-精神開闢은 현실의 인

1) 無自欺-精神開闢의 意義와 實行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拙稿, “無自欺-精神開闢에 관한 연구”, 大巡思想論叢, 제13집(大巡思想學術院, 2001) 參照.

간의 정신적 변화를 뜻하는 것이고, 地上神仙實現-人間改造은 인간이 신과 같은 최고의 인격적 존재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고, 地上天國實現-世界開闢은 우주와 만물의 질서와 생존 원리 등이 새롭게 변화되어 진정한 이상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뜻한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地上神仙實現-人間改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순사상의 인간관을 고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대순사상에서 인간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파악하여야 지상신선과 인간개조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대순사상의 인간관은 현세의 인간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와, 현실의 인간이 개조된 상태의 인간관을 상정할 수 있다. 인간이 개조된 인간이 지상신선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지상신선이 될 수 있는 인간의 개조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大巡思想의 人間觀

종교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궁극적인 것과 관련되어 인간 존재의 본질과 운명에 관해서 각각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의 존재와 본질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면서, 인간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명시해 주고 있다. 종교는 유한한 존재인 인간과 신과의 관계, 그리고 우주적 질서와 인간의 존재방식이 어떠한가 하는 문제를 밝혀 주고 있다. 그리하여 종교는 신관, 인간관, 우주관을 각각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인간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인간관이란 인간의 출생과 존재방식, 그리고 신과 우주와의 관계성을 규명하려는 것이다. 인간의 출생과 생물적 존재로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인간의 삶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가가 종교에서 인간관의 핵심이다.²⁾ 인간 행동의 근본은 개체 유지를 위한 본능을 갖고 있으며, 죽음과 같은 정신적·육체적 위기를 당하였을 때에 생명 유지와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소망을 갖는다. 인간은 죽음과 갖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문제가 되고 있다. 죽음과 같은 고통과 위기를

2) 黃善明, 宗敎學概論(서울 : 종로서적, 1982), p. 115.

극복하고자 하는 동기는 모든 인간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종교적 본능을 갖고 있으며 종교적 존재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종교는 현세의 삶은 유한한 것이며 삶의 범주는 유한성에 구속받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현세의 인간은 고통으로 충만 되어 있는 불완전한 존재로 가정한다.

여기서 살펴보고자 하는 대순사상의 인간관도 인간의 종교적 본능을 바탕으로 전개하고 있다. 대순사상의 인간관은 대순사상의 세계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대순사상은 인류사를 선천세계와 후천세계로 구분하고 있다. 선천세계는 인류가 출현하여 개벽이 되기 전까지를 말하고, 후천세계는 개벽이 이루어져 새로운 이상세계가 실현되는 시대를 말한다. 선천세계는 현재의 세계를 말하고, 후천세계는 우주만물이 완전히 조화를 이루어 지상천국이 실현된 세계이다. 선천세계는 상극원리가 지배하여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천지가 常道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이 참혹하게 되었다³⁾고 한다. 선천세계가 참혹하게 된 것은 음양의 부조화와 상극법칙에 의해 인간과 세계가 지배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극원리는 음양이 각기 다른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부정하여 서로 통하지 않는 것이다. 선천세계는 억음존양(抑陰尊陽)에 의한 음양의 부조화와 불균형으로 원한이 가득 차서 각종 재화가 빈발하고 인간사회는 불신과 불안이 증폭되어 원한이 쌓여 있다. 상극법칙에 의해 인간과 만물은 약육강식으로 원한이 쌓여 있으며, 천기(天氣)가 고르지 못하여 재해와 재앙이 발생하고, 질병이 생겨서 우주 만물이 멸망할 수 있는 위기에 있다고 한다.

인류가 진멸의 위기에 처한 것은 자연의 본성을 상실할 정도로 무분별하게 개발하여 생태계가 파괴되고, 자연이 자정능력(自淨能力)을 초과한 것도 주요한 원인이다.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자연이 인간에 대해 원한을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과학과 기술의 고도로 인간 생활은 크게 향상시켰지만, 인류가 발전시킨 현대 문명은 불완전하여 오히려 인류가 멸망할 지도 모를 위기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위기에 대해서 대순사상은 물질문명이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어, 天理를 무시하고 자

3) 典經, 공사 제1장 3절, p. 98.

연을 정복하였기 때문이라 한다. “...서양의 모든 문물은 천국의 모형을 본 딴 것이라, 그 문명은 물질에 치우쳐서 도리어 인류의 교만을 조장하여 마침내 천리를 흔들고 자연을 정복하려는 데에서 모든 죄악을 끊임없이 저질러 신도의 권위를 떨어뜨렸으므로 천도와 인사의 상도가 어겨지고 삼계가 혼란하여 도의 근원이 끊어지게 되나...”⁴⁾라 진단하였다.

인류가 멸망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한 선천세계는 인간의 의식과 행태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선천세계의 인간은 불완전하고 미성숙한 존재로 보고 있다. 선천세계의 인간들은 정신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아 인격적으로나 실제 행동에 있어서 문제가 많다고 본다. 그러나 후천세계의 인간은 현실의 인간이 완전히 변화된 초월적 존재로 변화된다고 한다. 따라서 대순사상의 인간관은 선천세계의 인간관과 후천세계의 인간관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후천세계의 인간관은 지상신선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으므로, 지상신선의 의의에서 살펴보고, 여기서는 현실의 인간관이라 할 수 있는 선천세계의 인간관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대순사상은 인간은 정신과 육체는 다르다는 이원론(二元論)과, 인간 행동은 마음의 작용이라는 心身同一說(psycho-physical identity theory)의 입장을 갖고 있다. 인간에 관한 연구는 전통적으로 이원론과 심신동일설의 입장이 있어 왔는데, 대순사상은 양자를 통합하고 있다. 정신과 육체를 분류한 것은 데카르트가 주장한 것으로 철학자들의 주요 관심사로서 계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인간 활동을 육체적 활동과 정신적 활동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이원론이다. 정신활동은 내면적이고 개인적이기 때문에 상태와 과정을 인지할 수 있는 것은 본인 자신 뿐이라 한다. 육체적 활동은 公的이고 物理的 世界이지만, 정신의 세계는 私的 世界의 일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육체를 포함한 물리적 세계의 사건과 사물들은 외적이고, 정신의 제 작용은 내적이라 할 수 있다. 육체적 활동은 외부로 나타나 다른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지만, 정신 작용은 내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 어렵다. 인간은 자신의 감정, 의지, 정서, 사고 등은 의식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의 정신세계를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인간의 정신과 육체가 어

4) 典經, 교운 제1장 9절, pp. 155-156.

떠한 형태로 상호작용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규명하기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⁵⁾ 일반적으로 마음의 의지가 육체의 각 기관의 행동으로 나타나며, 귀와 눈 등의 감각기관이 받아들이는 것은 지각작용(知覺作用)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한편 인간에 관한 철학적 연구의 한 분야가 유물론(唯物論)인데, 유물론에서는 心身同一說을 주장한다. 사람의 마음과 몸은 분리할 수 없으며, 마음은 두뇌의 특수한 기능에 불과하다는 것이다.⁶⁾ 정신작용은 인간정신이 두뇌 작용과 별개의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서 모든 것은 물질적인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일원론이라 할 수 있다.

대순사상에서는 인간을 정신과 육체로 나누어 安心·安身이라 하기도 하지만, 육체의 활동은 마음의 작용으로 보아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여 일원론으로 보기도 한다. 대순사상에서 말하는 마음이란 어떠한 것을 하고자 하는 욕구를 뜻하는데, 마음이 행동 기능을 주관한다고 한다. 마음이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여 마음의 상태가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일원론적 입장에서, 진실하고 순수한 양심을 가질 것을 강조한다.

둘째, 선천세계의 인간은 재리만 따르는 존재라 한다. 현실의 인간은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물질에 의해 행동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현실의 인간들은 물질의 욕구에 의해서 재리만 추구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현실세계가 만물이 생존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는데도, 인간들이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재리에만 눈이 어두워 있다고 한다.⁷⁾ 선천세계가 진멸의 상황에 처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사욕에 의해 재리만 탐하는데 원인이 있다고 한다.

셋째, 인간은 신이 될 수 있는 존재라 한다. 대순사상에서는 인간은 사후에 신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사람에게는 혼과 백이 있나니 사람이 죽으면 혼은 하늘로 올라가 신이 되어 후손들의 제사를 받다가 사대(四代)를 넘긴 후로 영도 되고 선도 되니라. 백은 땅으로 돌아가서 사대가 지나면 귀가 되

5) Gilbert Ryle, *The Concept of Mind* (New York : Barnes & Noble, 1984), 이한우 옮김, 마음의 개념 (서울 : 文藝出版社, 1994), p. 15.

6) 蘇興烈, “과학적 철학의 인간개념,” 申午鉉, 人間의 本質(서울 . 螢雪出版社, 1989), p. 262.

7) 典經, 교법 제1장 1절, p.221.

나라”⁸⁾하여, 신과 인간은 동일한 근원을 갖고 있다는 신인동형적 신관(神人同形的 神觀)의 입장을 갖고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죽은 다음에 신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한다. 생전에 도를 닦아 인격적으로 완성되고 진실무망한 생활을 하였을 때에만 사후에 신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대순사상에서는 “도를 닦은 자는 그 정혼이 굳게 뭉치기에 죽어도 흩어지지 않고 천상에 오르려니와 그렇지 못한 자는 그 정혼이 희미하여 연기와 물거품이 삭듯 하리라.”⁹⁾ 하여, 수도를 하였을 때에만 신이 될 수 있다고 한다. 그리하여 수도를 하여 본성을 밝게 하여 진실무망한 지성을 실행할 것을 강조한다. “性是 마음이 밝아져야 천품성을 깨닫는다(開心見性)하였으니, 참된 성품을 살피서 허망한 일을 하지 않는(眞實無妄) 지성에 이르면 신과 같아진다.”¹⁰⁾고 한다. 대순사상에서는 인간이 참된 본성을 깨닫는 수도를 하여야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한다.

넷째, 인간은 신명과 공존하면서 교류하는 존재라 한다. 대순사상에서는 인간이 태어나는 그 자체가 신명과의 교류에 의한 것이라 한다. ‘하늘이 사람을 낼 때에 헤아릴 수 없는 공력을 들이나니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선령신들은 육십년 동안 공에 공을 쌓아 쓸만한 자손 하나를 타내되 그렇게 공을 드러도 자손 하나를 얻지 못하는 선령신들도 많으니라. 이같이 공을 드러 어렵게 태어난 것을 생각할 때 꿈같은 한 세상을 어찌 잠시인들 헛되게 보내리오.’¹¹⁾라 하여, 인간의 출생은 조상신들의 공력에 의한 것이라 한다. 인간은 조상신들의 공력에 의해 출생하였기 때문에 신과 공존하면서 교류할 수 있다고 한다. 대순사상에서는 “사람의 마음은 신의 중요한 용사기관이요, 신이 출입하고 왕래하는 길이라(心也者 鬼神之樞機也 門戶也道路也)” 한다. 그리고 “신은 사람이 먹는대로 흠향하니라.”¹²⁾, 또는 “도를 닦는 사람의 주문 읽는 소리에 신응(神應)이 된다.”¹³⁾고 하여, 신과 인간은 동일한 근원을 갖고 있으며 상호 교류하는 관계라 한다. 그리고 지상에서 사람들끼

8) 典經, 교법 제1장 50절, p.230.

9) 典經, 교법 제2장 22절, p.237.

10) 대순지침, p.75.

11) 典經, 교법 제2장 36절, p.241.

12) 典經, 교법 제1장 49절, p.230.

13) 典經, 교법 제2장 23절, p.238.

리의 싸움은 천상에서 선령신들 사이의 싸움을 일으키는데, 천상에서 신들의 싸움이 끝난 뒤에 인간의 싸움이 결정되고 끝나게 된다고 한다.”¹⁴⁾ 신명들은 인간들의 행동을 관찰하여 복을 주기도 하고, 징벌을 하기도 하는 존재라 한다. “신명은 탐내어 부당한 자리에 앉거나 일들을 편벽되게 처사하는 자들의 덜미를 쳐서 물리치나니라. 자리를 탐내지 말며 편벽된 처사를 삼가고 덕을 닦기를 힘쓰고 마음을 올바르게 가지라. 신명들이 자리를 정하여 서로 받들어 앉히리라.”¹⁵⁾, 또는 인간에게는 항상 신명의 수찰이 있으므로, 속임과 거짓이 없어야 한다¹⁶⁾,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은 자신을 버리는 것(自欺自棄)이고, 마음을 속이는 것은 신을 속이는 것((心欺神棄)이니, 신을 속이는 것은 하늘을 속이는 것으로 어느 곳에서도 용납이 되지 않는다.”¹⁷⁾ 고 하여 인격을 수양할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남을 미워하면 본인은 몰라도 신명이 알고 책이 되어 갚는다고 한다.¹⁸⁾ 신명이 사람의 뱃속에 출입케 하여 그 사람의 체질과 성격을 고쳐 쓰겠다.¹⁹⁾고도 한다. 대순사상에서는 “신이 음이 되고 사람이 양이 되어, 음양이 서로 합한 연후에야 변화의도가 있으리라(神爲陰 人爲陽 陰陽相合然後 有變化之道也)”²⁰⁾하여 신과 인간이 상합하여야 우주와 인간사회가 안정되고 바람직하게 변화될 수 있다고 한다. 신과 인간이 상합하고 협력을 하는 데에는 인간의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한다. 신의 뜻은 인간의 마음을 통해 전달되고, 인간은 마음을 통해서 신의 뜻에 따른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신과 인간의 교류와 협력을 신인조화(神人調和化)라 하는데, 신인조화는 종교학의 신비주의(mysticism)와 같은 의미이다. 신비주의는 신인관계의 직접적 체험을 뜻하는데, 이를 체계적으로 연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대순사상의 신인조화는 인간이 신의 뜻을 존중하고 행동하여야 한다는 윤리성과 관련되어 있다.

다섯째, 인간은 근본적으로 욕구 충족을 위한 존재라 한다. “인간은 욕망을 채우지 못하면 분통이 터져 큰 병에 걸리느니라. 이제 먼저 난법을 세우

14) 典經, 교법 제1장 54절, p.231.

15) 典經, 교법 제1장 29절, p.226.

16) 대순지침, p.39.

17) 대순지침, p.42.

18) 典經, 교법 제2장 44절, p.242.

19) 典經, 교법 제3장 4절, p.245.

20) 典經, 재생 43절, p. 309

고 그후에 진법을 내리나니 모든 일을 풀어 각자의 자유 의사에 맡기노니 범사에 마음을 바로하라. 사곡한 것은 모든 죄의 근본이요. 진실은 만복의 근원이 되니라.”²¹⁾ 인간은 사고능력과 지능을 통해서 본능적 욕구가 충족되어도,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욕구를 충족하려 한다. 인간은 식욕과 종족보존의 욕구 등의 본능적 욕구를 충족하고서도 인간적인 욕구를 갖고 있다. 대순사상에서는 능력과 분수에 적합하지 않은 과도한 욕구는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한이 생기고, 마음의 안정도 가져올 수 없다고 한다. 특히 인간의 원한은 천지 기운을 막게 할 정도로 커다란 문제를 야기한다고 한다. 인간들이 욕심을 앞세우기 때문에 정기(正氣)가 없어지고 사기(邪氣)가 선동하여 허령(虛靈)이 된다고 한다.²²⁾ 인간이 과도한 욕심을 갖게 되는 데에서 사사로운 마음인 邪氣의 지배를 받는다고 한다. 이러한 正氣와 邪氣를 良心과 邪心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양심은 인간이 타고난 천성으로 본 마음이며, 사심은 物慾에 의하여 나타나는 욕심이다. 대순사상에서는 양심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인성의 본질인데, 물욕으로 인한 사심에 의해 재리를 탐하고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고 한다.

여섯째, 대순사상에서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修道를 해야 하는 존재라 한다. 수도는 대순사상을 이해하고 실행을 하려는 신앙생활을 뜻한다. 수도는 인륜을 바로 행하고 도덕을 밝혀 나가는 일로서,²³⁾ 인간의 도리를 충실하게 하면서 도덕적 생활을 하는 것이다. 수도는 마음을 깨끗이 하고 양심에 따르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죄가 없어도 있는 듯이 잠시라도 방심 말고 조심하라”²⁴⁾고 하고, “마음을 깨끗이 가져야 복이 이르나니 남의 것을 탐내는 자는 도적의 기운이 따라들어 복을 이루지 못하나니라”²⁵⁾라고 한다.

한편 수도는 남이 잘되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남을 잘되게 하는 것은 상생대도(相生大道)의 기본 원리이며, 만물을 구원할 수 있는 구제창생(救濟蒼生)의 근본 이념이라 한다.²⁶⁾ 인간은 이기적인 행동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척

21) 典經, 교법 제3장 24절, p.254.

22) 대순지침, p.40.

23) 대순지침, p.37.

24) 典經, 교법 제1장 36절, p.227.

25) 典經, 교법 제1장 21절, p.225.

을 짓게 되고 원한을 쌓게 되기 때문에, 남을 잘되게 하는 상생원리를 실행할 것을 강조한다. 수도는 道通을 받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 “수도를 하여 마음을 거울과 같이 닦아서 진실하고 정직한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였을 때 도통에 이른다.”²⁷⁾라 한다. 도통이란 인간으로서 최고의 인격적 존재가 되는 것으로 신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곱째, 인간은 자립 능력을 쌓아야 하는 존재라 한다. 대순사상에서는 스스로 자립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다고 한다. “우리 공부는 물 한 그릇이라도 연고없이 남의 힘을 빌리지 못하는 공부이니 비록 부자와 형제간이라도 함부로 의지하지 말지어다.”²⁸⁾라 가르치고 있다. 대순사상에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아주 사소한 도움을 받더라도 인연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인연이란 과거부터 쌓아온 것으로서, 남을 도와주었을 때에 생기는 것이라 한다. 내가 먼저 남을 도와주었을 때에 인연이 생기는 것이며, 이러한 인연이 있어야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쌓고 다른 사람을 잘되게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그리고 대순사상에서는 “인망을 얻어야 신망에 오르고 내 밥을 먹는 자라야 내일을 하여 주느니라.”²⁹⁾라 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신으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고, 자립적인 생활을 하여야 어떠한 일도 성취할 수 있다고 한다.

여덟째, 선천세계의 인간들은 능력과 신분에 따라 차별을 받고 있다고 한다. 선천세계는 상극원리가 지배하여 인간과 자연계가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이 일반화되었다. 선천세계는 억음존양(抑陰尊陽)으로 남녀차별이 지배하는 가부장적 문화, 적서(嫡庶)와 반상(反常)의 구별로 인한 차별, 신분과 경제력 등 개인적 능력에 의해 차별이 보편화되었다. 그리하여 대순사상은 전통적으로 내려 왔던 반상관계(班常關係)를 비롯한 적서(嫡庶)의 차별과 남녀 불평등을 타파할 것을 역설하고 있다.

아홉째, 인간은 해원을 하여야 하는 존재라 한다. 선천세계의 인간은 모든

26) 대순진리회요람, p.20.

27) 대순지침, p.38.

28) 典經, 교법 제1장 7절, p.222.

29) 典經, 교법 제1장 25절, p.225.

육구를 충족할 수 없으므로 원한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이나 자연 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원한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인간은 사육으로 재리를 탐하고, 남을 비판하고 험담을 하여 척을 짓기도 한다. 이와 같이 선천세계는 원한을 갖기도 하고 남에게 원한을 살수도 있으므로, 원한을 쌓지 않아야 하며 해원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한다. 대순사상에서는 “지금은 해원시대니라. 양반을 찾아 반상의 구별을 가리는 것은 그 선령의 뼈를 깎는 것과 같고 망하는 기운이 따르나니라. 그러므로 양반의 인습을 속히 버리고 천인을 우대하여야 척이 풀려 빨리 좋은 시대가 오리라.”³⁰⁾하여 해원을 강조한다. 특히 인간의 원한은 천지의 기운을 막을 수도 있을 정도로³¹⁾, 인간에게 커다란 폐해를 줄 수 있으므로, 해원을 하여야 한다고 한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피로 피를 씻는 것과 같으니라”³²⁾하여, 남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복을 하게 되면 원한만 증폭된다고 한다. 그리하여 “원수의 원을 풀고 그를 은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그도 덕이 되어서 복을 이루게 되나니라.”³³⁾하여, 원수도 은인과 같이 대하여 해원을 할 것을 강조한다.

끝으로 인간은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보고 있다. 우주를 구성하는 요소인 천지인(天地人) 중에서 인간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한다. 하늘과 땅은 인간이 생존하는데 기본 요소이지만, 천지는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관념에서 대순사상은 인존사상(人尊思想)을 근간으로 한다.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라”³⁴⁾ 선언하여, 인간을 우주와 역사의 중심적 존재로 보고 있다. 인존사상은 모든 인간은 평등해야 하며, 인간의 존엄성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순사상은 선천세계에서는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은 신(하늘)이 도와주어야 뜻을 이룰 수 있다고 하였지만, 후천세계에서는 뜻은 하늘에서 세우고 그 실현은 인간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한다. “선천에는 모사는 재인(在人)하고 성사는 재천(在天)이라 하였으나, 이제는 모사는 재천하고 성사는 재인이니라.”³⁵⁾ 하

30) 典經, 교법 제1장 9절, p.222.

31) 典經, 교법 제1장 31절, p.226.

32) 典經, 교법 제1장 34절, p.227.

33) 典經, 교법 제1장 56절, p.231.

34) 전경, 교법 제2장 56절, p. 244

여 인간을 우주에서 가장 고귀한 존재로 인정하는 동시에, 인간 능력의 개발과 발전에 대한 무한한 믿음을 갖게 한다. 그리고 인간은 신과 같은 능력을 갖고 있다고 전제하여 모든 인간은 평등한 권리를 갖고 있으며 동등하게 존중해야만 한다고 한다.

대순사상은 자연으로부터의 인간의 자기발견, 종교적 제도의 속박으로부터 인간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회복하고자 하며, 반인간주의적(反人間主義的) 전통과 인습으로부터 스스로를 되찾아 인간의 인격과 위치를 밝히고자 하는 인간주의를 실현하고자 한다.³⁵⁾ 인간의 본래성을 구속하는 모든 것들로부터의 자유와, 인간성의 회복과 본연의 인간성을 상호 존중하는 인간주의가 대순사상의 인간존중이며 인간관의 핵심이다.

Ⅲ. 地上神仙의 意義

신선사상은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형성된 사상으로 인간에 대한 절실한 소망을 담고 있다. 신선이란 늙지 않고 오래 살며 마음대로 변화를 일으키는 신통력을 가진 존재를 말한다. 그리하여 신선사상은 인간이 실제적·육체적으로 죽음을 초월하고자 하는 소망과 의식, 그 달성에 수반되는 다양한 방법적 기술적 체계를 총칭하는 것이다.³⁷⁾ 신선사상이 형성된 것은 인간이 숙명적으로 안고 있는 생로병사(生老病死)를 탈피하여 불로장생(不老長生)하는 초월적인 존재가 되고자 하는 소망에서 비롯되었다. 신선사상은 오래 전부터 인간이 속세를 떠나서 선계(仙界)에서 젊음을 유지하며 장생불사(長生不死)한다는 신선의 존재를 상정하고, 신선에 될 수 있기를 추구하는 사상이다.³⁸⁾

지상신선은 대순사상의 바람직한 이상적 인간상이다. 지상신선이란 인간이 생존시에 신선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의미이다. 지상신선은 대순사상에서 최고의 인간상이라 할 수 있는데, 선천세계와 후천세계에서 모두 가능한

35) 전경, 교법 제3장 35절, p. 257

36) 金樹澈, 道德과 倫理(서울·敎文社, 1987), p. 149.

37) 鄭在書, 不死의 신화와 사상(서울: 민음사, 1994.), p.34.

3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3권(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p.839.

인간의 모습이다. 모든 것이 불완전한 선천세계에서도 인간은 수도를 하면 신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이 지상신선이다. 개혁이 이루어져 선천세계에서 후천세계로 전환되면 모든 인간이 새로운 존재로 변하는데, 이도 신선이다.

대순사상에서 말하는 지상신선은 전통적인 신선사상을 포함하고 있지만, 사상적으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대순사상에서 말하는 지상신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대순사상에서 신선은 하늘에 존재한다고도 하고,³⁹⁾ 현실의 인간도 신선과 같이 변화할 수도 있다고 한다. 지상신선은 인간이 신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다. 대순사상에서는 신은 진리의 표준이며, 인간은 진리에 합치될 수 있는 존재라 가정하고 있는데,⁴⁰⁾ 이러한 가정에 의해 인간이 진리에 합치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지상신선이다. 인간은 신과 같은 수준 이상의 능력을 가진 존재로서 신과 같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는 데에서 지상신선의 관념이 가능하다. 대순사상에서는 신선에게 배우는 것을 선학(仙學)이라고 하고, 신선이 사는 곳을 선경(仙境)⁴¹⁾이라고도 한다. 신선은 본래 하늘에서 살고 있는 신과 같은 존재로서 후천세계의 인간상이라 할 수 있지만 선천세계에서도 인간이 수도를 충실히 하면 신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한다. 그리하여 지상신선이라 표현하고 있으며, 현실세계를 선경으로 만들겠다고 한다. 후천세계를 지상선경이라고도 하는데, 지상선경은 인간이 생존하는 현 세계를 신선이 사는 곳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종교적 사상을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신선관념은 인간의 이상적인 모습을 제시하고, 인간의 도리를 충실히 행하라는 종교의 윤리성을 강조한 것이다.

둘째, 지상신선은 인간이 초월성을 가진 존재가 되는 것이다. 대순사상의 인간관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인간은 생존시에도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인간이 신과 같은 존재가 된 것이 지상신선이다. 인간이 신과 같이 초월적인 능력을 갖는 존재로 새롭게 변신한다는 신선관념(神仙

39) 典經, 교법 제3장 16절, p.250.

40) 鄭大珍, “大巡思想研究를 위한 提言”, 大巡思想論叢, 제1집 (大巡思想學術院, 1996), p. 5

41) 典經, 권지 제1장 21절, p.271.

觀念)은, 인간의 잠재된 능력을 무한히 개발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제기된 사상이다.

셋째, 후천세계에서는 모든 인간이 가장 존중받는 존귀한 존재가 된다고 한다.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라”⁴²⁾라 하여, 인간존중을 강조하고 있다. 대순사상의 지상신선은 모든 인간이 신선이 된다는 의미로 모든 인간이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다.

넷째, 지상신선은 평등사상을 뜻한다. 후천세계에서는 모든 인간의 차별이 철폐되어 평등한 존재가 된다고 한다. “이제 해원시대를 맞이 하였으니 사람도 명색이 없던 사람이 기세를 얻고 땅도 버림을 받던 땅에 기운이 돌아 오리라.”⁴³⁾하고, “후천에서는 약한 자가 도움을 얻으며 병든 자가 일어나며 천한 자가 높아지며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얻을 것이요. 강하고 부하고 귀하고 지혜로운 자는 다 스스로 각일지라.”⁴⁴⁾하고, 그리고 “후천에서는 그 닻은 바에 따라 여인도 공덕이 서게 되리니 이것으로써 옛부터 내려오는 남존여비의 관급은 무너지리라.”⁴⁵⁾한다. 선천세계에서는 인간이 신분과 성별과 지위 등에 의해 차별을 받았으나, 지상신선이 되면 모든 인간이 평등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다섯째, 지상신선은 인간이 도통(道通)을 하는 것이다. 대순사상에서는 신앙을 道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수도라 한다. 대순사상의 도는 天道, 地道, 人道, 神道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인간이 이러한 모든 도에 완전히 통하는 것을 말한다. 도통은 인간이 수도를 하여 자연과 같은 본성을 회복하여 덕을 실행하는 완성된 인격체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순사상에서는 도는 스스로 깨달아야 하며(道之覺),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성실하게 수행해야만 하며, 이를 널리 펴야(布德)하는데, 이러한 실행을 완전히 행하는 것이 도통이다. 인간이 도통을 하게 되면 天地人 三界의 구성과 변화의 이치를 완전히 알게 되고 어떠한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초월적인 능력을 갖게 되고,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철저히 행하게 된다.⁴⁶⁾ 도통을 하면 천지인 삼

42) 전경, 교법, 제2장 56절, p.56.

43) 典經, 교법 제1장 67절, p.233.

44) 典經, 교법 제2장 11절, p.236.

45) 典經, 교법 제1장 68절, p.233.

46) 도통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拙稿, “道通眞境의 宗教的 意義”, 大巡思想論叢,

계의 도인 天道, 地道, 人道는 물론, 신과도 합일(神道)을 이루어 천지 자연의 이치를 완전히 이해하여, 인간으로서 최고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지상신선은 인간이 도통을 하여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전환되는 것이다.

끝으로, 지상신선은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salvation)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종교에서 인간은 절대적 존재에 의해 재난, 불완전성, 불행으로부터 구제되어야 하는 존재로 보고 있다. 고대로부터 신과 대조적으로 인간은 죽음의 운명을 안고 있으며 악령들에 의해 재난과 불행을 겪게 된다고 믿었는데,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종교의 구원이다. 종교적 구원의 방법과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기독교에서는 신이 인간을 죄악에서 구원시키기 위해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화육(incarnation)의 관념이 있고, 회교에서는 신의 계시된 뜻에 순종함으로써 구원된다고 믿는다. 힌두교는 예배자들의 영혼을 물질의 속박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구원신들에게 봉헌할 것을 요구한다. 불교에서는 윤회로부터 탈피하여 해탈하는 것을 구원으로 보고 있다.⁴⁷⁾ 대순사상의 구원은 지상신선으로의 변화이다. 생존한 인간이 신과 같은 존재로 변화하는 지상신선은 다른 종교의 구원관과는 차원이 다르다. 살펴 본 바와 같이 인간은 신이 될 수 있는데 지상신선은 도를 닦아서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여 완전한 도덕성을 갖추어야 가능하다. 그 만큼 대순사상의 구원관인 지상신선은 종교적 윤리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하여 지상신선은 인간개조와 관련되어 있다. 현실의 인간은 개인적 욕망과 邪心 등으로 비양심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인간 본연의 양심을 찾아서 완전한 도덕성을 갖출 것을 강조한다. 이것이 다른 종교의 구원과는 다른 대순사상의 특성이다. 지상신선은 신적 존재와 인간 자신의 본질 회복이라는 양면성을 통합하고 있다.

IV. 人間改造의 方向

대순사상에서 지상신선을 실현하고자 하는 인간개조에 관해 살펴보고자

제5집(大巡思想學術院, 1998) 參照.

45) W. Richard Comstock, *Religion and Man*, 尹元徹 譯, 宗敎學(서울 : 展望社, 1983), pp. 204-205.

한다. 현실의 인간을 개조한 결과가 지상신선이다. 앞에서 고찰한 지상신선을 어떻게 하면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선천세계의 불완전한 인간이 신과 같은 인격과 능력을 가진 존재로 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인간이 지상신선이 될 수 있는 인간개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인간개조는 정신개혁이 이루어져 무자기(無自欺)를 실현하는 것이다. 무자기는 인간이 인격을 완성하여 본성인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신개혁은 무자기를 실행하는 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인간사회를 안정시키며, 후천세계를 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참다운 인간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선천세계에서는 양심대로 사는 사람이 邪心대로 사는 사람에 비해 손해나 피해를 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다. 그리하여 선천세계에서는 양심을 따르는 無自欺를 실행하지 않고 사욕에 의해 행동을 한다. 이러한 선천세계의 인간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참마음을 갖고 無自欺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지상신선이 되려면 인간이 본성을 회복해야 한다. 대순사상에서는 어질고 착한 마음이 만물이 존재하는 기본원리라 하고 있는데, 지상신선이 되는 인간개조는 곧 인선(仁善)을 행하는 것이다. “仁善의 自誠이 道誠의 定石이므로 誠이 아니면 만물도 존재하지 못한다.”⁴⁸⁾고 하여 誠한 마음이 없으면 만물이 존재할 수 없다고 한다. 仁善을 스스로 성실하게 실행하는 것이 바로 道를 성실하게 닦는 기본이며 인간개조의 요체라 할 수 있다.

셋째, 지상신선이 되는 인간개조를 이루려면 한 마음(一心)을 가져야 한다. 대순사상에서는 참마음을 가져야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속이면 인간으로서의 도덕적 행동과 인간의 도리를 할 수 없다고 한다. 인간의 도리를 하는데 하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행할 수 없으므로, 실행하겠다는 바른 마음을 가져야 한다.⁴⁹⁾ 그리하여 대순사상에서는 인간이 참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자신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고 한다. 인간은 마음에서 뜻이 생기고, 뜻에 의해서 행동이 이루어지는데 마음이 참되어야 참다운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인간개조는 지상신선과 같은 존재가 되겠다

48) 대순지침, p. 51.

49) 대순지침, p. 52.

는 일심을 가져야 한다. 대순사상에서는 인간이 성공을 하지 못하는 것은 한 마음을 갖지 않은데 원인이 있다고 한다.⁵⁰⁾ 한편 대순사상에서는 “진실로 한 마음을 간직하기란 죽기보다 어려우니라.”⁵¹⁾ 하여 일심을 유지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고 한다. 인간개조를 하려면 지상선선과 같은 존재가 되겠다는 한 마음을 갖고 인격수양과 수도를 해야만 한다.

넷째, 인간개조는 자기 자신보다도 남을 잘되게 도와주어야 한다. 대순사상에서는 “우리의 일은 남을 잘되게 하는 공부이니라. 남이 잘되고 남은 것만 차지하여도 되나니”⁵²⁾라 하여, 이타주의를 강조한다. 선천세계는 상극원리에 의해 우주와 인간사회가 이루어져서 모두가 자기가 잘 되겠다고 경쟁하는 데에서 원한이 쌓여 진멸상태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남이 잘 되도록 하는 상생원리로 변화되어야 한다. 대순사상에서는 “선천의 도수를 뜯어고치고 후천의 무궁한 선경의 운로를 열어서 선천에서의 상극에 따른 모든 원한을 풀고 상생의 道로써 세계의 창생을 건지려 한다.”⁵³⁾ 선천세계는 상극원리가 지배하였으나, 후천세계에서는 상생의 원리에 의해 만물이 존재하고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인간 개조란 인간이 생활을 하는데 상생원리를 충실히 하는 것이다.

다섯째, 인간개조를 위해서는 수도를 하여야 한다. 수도는 인륜을 바로 행하고 도덕을 밝혀 나가는 것이다. 수도는 인격을 도야하고 일상생활에서 인간의 도리를 충실히 행하여 도덕적 인간이 되는 것이다. 수도를 강조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은 욕망에 의해 마음이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음을 바르게 하고 본성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邪心이 발동하여 각종 죄악을 저지를 수 있다. 수도는 마음을 바르게 하는 인격 수양과 항상 인륜을 행하게 하려는 신앙생활로서, 이러한 수도를 하여야 인간이 새롭게 변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수도는 道心(종교심)을 심화시키려는 신앙생활이다. 종교심은 신뢰, 감정, 의지, 사고 등으로 형성되지만, 이러한 종교심은 완전하지 못하고 개인적 체험이 본질적이라 한다.⁵⁴⁾ 심리학적인 의미로서 종교는 개인적

50) 典經, 교법 제2장 5절, p. 234.

51) 典經, 교법 제2장 6절, p. 235.

52) 典經, 敎法 제1장 제2절, p.221.

53) 典經, 예시 제6절, p.312.

54) 윤주병, 종교심리학(서울 : 서광사, 1986), p.70.

체험에 의해 형성되는데, 이러한 체험에 의한 종교심은 주체적이고 확고하게 유지될 수 있다. 대순사상에서 수도는 곧 주체적인 종교심을 심화시키는 신앙생활이다. 대순사상에서 수도는 “마음으로 닦고 몸으로 행동하여 심신이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⁵⁵⁾고 하여, 마음의 정화와 도덕적 행동이 일치되어야 한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수도는 인간의 본질을 찾고 자신의 양심에 따른 행동을 하기 위한 것으로, 인간개조를 위한 주요 방법이다. 도심을 성숙시키는 사람은 개인적 생활과 종교적 생활 체험의 폭을 넓혀 나간다. 인간이 개인적 욕구, 욕망, 본능에 의해서 행동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반성하고 통찰하여 종교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확신을 갖는 것은 수도를 충실히 할 때 가능하게 된다. 수도는 邪心을 버리고 절대자와의 합일된 생활을 지향하여 최고의 인격자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다스리고 도덕적 행동을 하려는 것이다.

여섯째, 인간개조는 인간이 최고의 인격적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인간이 인격을 완성하여 도덕적인 생활을 하는 것으로서, 이는 인간으로서 실천해야 할 기본적인 도리를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인간개조는 마음을 수양하여 진실한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고 최고 수준의 인격을 도야하고 진실무망(眞實無妄)하여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항상 최선을 다하며,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참된 일만 하는 경지에 이르는 것이다. 대순사상에서는 인간의 길흉화복은 신이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과 마음에 의해 얻어지는 것으로서, 인간이 덕을 쌓고 마음을 바로 가질 때 신이 도와준다고 한다. 그리하여 “죄가 없어도 있는 듯이 잠시라도 방심말고 조심하라”⁵⁶⁾, 하여 항상 근신할 것을 강조한다. 인격을 도야하여 덕을 쌓고 마음을 바르게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신명들이 도와주어 인간은 행복해 질 수 있지만, 부당한 일을 하거나 마음을 바르게 갖지 않아 비도덕적인 일을 하면 신명이 이를 알고 바르게 잡아 피해를 입을 것이라 가르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간개조는 인간의 완성을 의미한다. 우주의 구성요소인 천지인 중에서 인간이 가장 존귀한 존재이지만, 선천세계의 인간은 결함이 많으므로 성숙한 인

55) 대순지침, p. 45.

56) 전경, 교법 제1장 36절, p. 227

격을 갖춘 인간으로서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 인간개조이다.

일곱째, 인간개조는 원한을 만드는 척을 짓지 말아야 하고, 척에 의해 원한이 생겼다면 척을 풀어야 한다. 척이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든지 억울하게 하여, 다른 사람이 나에게 원한을 갖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인간은 척이 없어야 잘 살 수 있고, 남을 억울하게 하여 원한을 사면 보복을 당하게 된다고 한다. 척을 짓지 않으면 원한이 생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척을 짓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대순사상에서는 “속담에 ‘무척 잘 산다’ 이르니’ 이는 척이 없어야 잘된다는 말이다. 남에게 억울한 원한을 짓지 말라. 이것이 척이 되어 보복하나니라. 또 남을 미워하지 말라. 사람은 몰라도 신명은 먼저 알고 척이 되어 갚나니라.”⁵⁷⁾ 사심에 의해 척을 짓게 되면 보복을 당해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척을 짓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다. 척과 원한을 짓지 않으려면 언덕을 실행하여야 한다. 대순사상에서는 “...말은 마음의 외침이고 행실은 마음의 자취로다. 남을 잘 말하면 덕이 되어 잘되고 그 남은 덕이 밀려서 점점 큰 복이 되어 내 몸에 이르나 남을 헐뜯는 말은 그에게 해가 되고 남은 해가 밀려서 점점 큰 화가 내 몸에 이르나니라”⁵⁸⁾ 한다. 말이란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남에게 말을 잘해야 덕이 되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한다.

끝으로 인간개조는 安心·安身이 실현되어야 한다. 마음이 사람의 행동을 주관하므로, 진실하고 순결한 본연의 양심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한다. 그리고 마음의 현상을 나타내는 것은 몸이니 모든 행동을 법례(法禮)에 합당케 하며 도리에 알맞게 행동하여야 한다고 한다.⁵⁹⁾ 안심은 인간이 천성인 양심을 유지하고, 안신은 양심에 따라 예법에 맞는 인륜을 실천하는 것이다. 안심·안신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상태로서, 성숙한 인격을 갖추어야 가능하다. 인간개조는 안심·안신이 실현되어 인간의 본심인 양심을 유지하고 도리에 적합한 행동을 하는 수준에 이르러야 가능하다.

57) 典經, 교법, 제2장 44절, p. 242.

58) 典經, 敎法 제1장 제11절, p.223.

59) 上揭書, p. 15.

V. 結 論

이상으로 대순사상의 목적 중 지상신선과 인간개조에 관해 살펴보았다. 지상신선이 되고자 하는 인간개조는 인간이 최고의 인격적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인간이 인격을 완성하여 인간으로서 실천해야 할 기본적인 도리를 실행하는 것이 개조된 인간이고 지상신선이 되는 길이다. 지상신선은 마음을 수양하여 진실한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는 인간개조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지상신선이란 인간이 신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다. 지상신선은 인간이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가정 아래 신과 같은 인격적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한다. 인간이 참된 성품을 깨달아 허망한 일을 하지 않고, 지성을 다하여, 신과 같은 수준의 인격과 초월적인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 지상신선이고 도통이다.

인간이 개조되어야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뢰받고 존중받을 수 있다. 대순사상에서는 신의 도움이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존중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 인간이 양심이 아닌 邪心으로 자신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대하면 신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양심을 회복하여 참다운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개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순사상의 지상신선-인간개조는 현대사회의 도덕성 타락으로 인한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중요한 사상이 될 수 있다. 인간개조를 위한 노력은 현대 사회의 각종 병리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윤리적 덕목이 될 수 있다. 현대 사회의 각종 문제는 양심을 버리고 개인의 지나친 욕망에 의해 행동을 하는 데에서 나타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지상신선과 같은 존재로 변화될 수 있는 인간개조를 행한다면 현대사회의 대부분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지상신선이 되는 새로운 인간으로 변화되면 대순사상의 궁극적 목적인 지상천국을 건설할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천성인 양심을 회복하여 참다운 행동을 하는 정신의 대변화인 인간개조가 실현되면 지상신선이 될 수 있고, 이상세계인 지상천국도 실현할 수 있다. 대순사상의 궁극적 목적인 지상천국은 인간의 개조가 선행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참고문헌】

- 大巡眞理會要覽(서울 : 大巡眞理會敎務部, 1969).
-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지침(서울 : 大巡眞理會出判部, 1984).
- 典經.
- 論語
- 孟子
- 中庸
- 金樹澈, 道德과 倫理(서울 : 敎文社, 1987).
- 노길명, 한국신흥종교연구(서울 : 경세원, 1996).
- 윤주병, 종교심리학(서울 : 서광사, 1986).
- 李東植, “東洋思想과 西洋思想의 만남,” 道原 柳承國博士 華甲紀念 論文集 : 東方思想論巧(서울 : 鐘路書籍, 1983)
- 朴昇植, “陰陽合德의 意義와 思想的 價値,” 大巡思想論叢, 제2집(大巡思想學術院, 1997).
- 朴昇植, “政策研究의 解冤相生的 接近,” 大巡思想論叢, 제4집(大巡思想學術院, 1998).
- 朴昇植, “道通眞境의 宗教的 意義”, 大巡思想論叢, 제5집(大巡思想學術院, 1998).
- 朴昇植, “大巡思想의 信條 : 安心·安身”, 大巡思想論叢, 제7집(大巡思想學術院, 2000).
- 朴昇植, “誠思想과 修道” 大巡思想論叢, 제9집(大巡思想學術院, 2000).
- 朴昇植, “敬思想 研究” 大巡思想論叢, 제10집(大巡思想學術院, 2000).
- 朴昇植, 大巡思想의 信과 信念體系“, 大巡思想論叢, 제11집(大巡思想學術院, 2001).
- 朴昇植, “無自欺-精神開闢에 관한 연구”, 大巡思想論叢, 제13집(大巡思想學術院, 2001).
- 裴宗鎬, 韓國儒學의 哲學的 展開(서울 : 延世大學校 出版部, 1985).
- 蘇興烈, “과학적 철학의 人間개념,” 申午鉉, 人間의 本質(서울 : 螢雪出版

社, 1989).

柳承國, 東洋哲學研究(서울 : 東方學術研究院, 1988).

윤주병, 종교심리학(서울 : 서광사, 1986).

임희섭, “정보화사회의 사회구조”, 최정호 외, 정보화사회와 우리(서울 : 도서출판 소화, 1995).

李符永, 分析心理學 : C.G.Jung의 人間心性論(서울 : 一潮閣, 1987).

임헌규, 유가의 심성론과 현대 심리철학(서울 : 철학과 현실사, 2001).

鄭大珍, “大巡思想研究를 위한 提言”, 大巡思想論叢, 제1집 (大巡思想學術院, 1996).

鄭在書, 不死의 신화와 사상(서울 : 민음사, 199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3권(서울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Abraham H. Maslow, "The Theory of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July, 1943).

Gilbert Ryle, *The Concept of Mind* (New York : Barnes & Noble, 1984), 이한우 옮김, 마음의 개념 (서울 : 文藝出版社, 1994).

Karl Mannheim, *Ideologie und Utopie*, (Verlag G. Schulte-Bulmke Frankfurt : Main, 1952), 임석진 역,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서울 : 청아출판사, 1991).